

후보군 경력 화려 '별들의 전쟁' 예고

■순천시장 입지자

순천시는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시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중도 하차하면서 재선 시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4기인 현 노관규(50) 시장은 임기를 채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처음으로 재선 도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구희승 변호사,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 신태호 변호사, 윤병철 순천시의원,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보훈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모두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으나 윤병철 의원만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9급 공무원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관규 시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의정부지청, 수원지검, 대검 중앙수사부 등에서 검찰 생활을 하며 주목받는 차세대 검사였다. 그는 2000년 정치에 입문, 지난 총선에 출마했으나 석패한 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 열린우리당 후보를 물러치고 당선됐다.

4년 동안 투명과 청렴 행정을 선보이며 그

■순천시 입지자



동안의 민선 순천시장의 오명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노 시장은 순천만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민선 이후 처음으로 재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장다운 시정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다. 노 시장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부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수도 만들었다"며 "이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세계 속의 순천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보훈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지난 1991년부터 8년 동안 도의원을 하다가 1998

년 당시 허경만 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정부부지사로 3년 7개월 동안 활약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순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춘준씨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전하는 데 만족했으며 2004년에는 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민화식 전 해남군수에 게 선포, 부를 삼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에 임명됐으나 이번 정부 초반에 임기를 남긴 채 사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선거를 준비했다. 그는 '40만 허브도시 순천시대' '삶의 기쁨이 넘치는 생활형 명품도시 순천'의 실현을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영달이 아니라 순천의 주민인 시민 모두를 위하여 열린 시정을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려는 청렴한 목민관이 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이은 전 차관은 지난 1979년 해양환경청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설 때까지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돼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가 2008년 2월 그만두고 귀향, 표발을 다져왔다.

이 전 차관은 "중앙부처에 있으면서도 광양항이 제2의 부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노관규 '청렴 행정' 자평...민선시장 첫 재선 도전 조보훈·이은·구희승·신태호·박광호 '공천 경쟁'

면서 "여수·순천·광양을 통합, 경제 체제에 허덕이는 순천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희승 변호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부처에서 15년 근무하다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판사로 6년여 활동하다가 지난 2007년 1월 판사직을 그만 두고 구민주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정계 입문했지만 대통령민주신당과의 합당 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고 좌절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 1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 각 부처의 중간간부로 경제행정을 담당하면서 체득한 현실감과 개인 인맥을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순천을 만들고 싶다"며 "생태도시"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것으로 너무나 정적이며 순천의 특장이 될 수 없다.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태호 변호사도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물. 판사출신인 신태호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총선 때 판사를 그만두고 당시 민주당 김경태 의원을 상대로 무소속으로 출마, 39% 득표율을 올리며 순천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신태호 변호사는 총선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

준비를 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선의 박광호 순천시의회 의장은 20여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내 마음 같은 시장' '내 집 같은 시정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에 신선한 바람을 약속했다. 박 의장은 "시장은 행정의 달인이 아닌 소통의 달인이 돼야 한다"며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섬기는 리더십으로 순천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3선의 윤병철 순천시의원도 "특정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천받는 시장이 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방자치위원장을 지냈으며 순천만 하도 정비 민간합동조사단장, 순천조례저수지공원화사업 등 시민운동을 거쳐 2000년 순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3선 시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수근 순천시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히태민기자 hagija@

■쟁점 & 변수

순천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은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시장이 이 박람회의 유치를 최대 처적 중 하나로 손꼽는데 반해 일부 후보들이 개최 반대 또는 규모 축소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원박람회 개최 반대하는 후보는 조보훈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구희승 변호사, 이은 전 해수부 차관 등이다. 이들은 노 시장이 기획한 정원박람회 규모가 순천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박람회 실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부족했다", 구 변호사는 "재원·규모·시기 등에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 전 부지사는 "순천시 현 재정 상태론 무리다"라고 주장하며 순천정원박람회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노 시장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잘 돼가고 있는 행사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조해야 할 사람들이 방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원박람회는 '생태수도 순천'의 자산을 순천만을 친환경적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 되는 사업"이라며 "순천이 세

①국제정원박람회 '찬·반논쟁'

②노관규-서갑원 불협화음?

<순천시장> <국회의원>

계적 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방적 추진 주장에 대해 "이미 의회나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는데,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흠집 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기저에는 노 시장과 서갑원 의원의 불화가 숨어있다. 박람회 대한 지적은 서 의원으로부터 비롯됐고 서 의원 측 후보들이 모두 반대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단체장과 의원의 갈등은 민주당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 의원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노 시장이 공천받는 것을 저지할 경우, 지지도 압도적 1위의 노 시장이지만 공천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서 의원이 내놓고 노 시장의 공천을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런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경우라도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노 시장이

잡음을 일으킨 일이 없어서 승부를 가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시장과 서 의원의 불화는 일부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추진이라는 묘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구희승 변호사, 박광호 시의원 의장, 이은 전 해수부차관, 조보훈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4명의 후보가 오는 1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 시장 측에서는 단일화 추진의 배후로 서 의원을 지목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단일화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도 아니고 같은 당 소속의 현직 시장을 겨냥한 단일화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히태민기자 hagija@

■도의원 입지자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조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지역이 순천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석이었던 것이 5석으로 늘었다. 주민 없는 선거구가 3개나 생겨 전남도의원 입지자들의 골라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1선거구(해동·도사·별당·상사·낙안·외서·송광면)에는 재선의 정영식 순천시의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도의원 꿈을 키워가고 있다. 현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순천시의 개발을 이끌어 왔으며 순천농협 이사

와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을 지냈다. 여기에 조재근 민주당 전남도당 조직행정실장과 김기태 순천시의회원이 경쟁하며 경선판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 실장은 순천농협 이사와 연정 승주군지회장을 지냈으며 김 의원은 5기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순천시새마을지도회 이사를 맡고 있다.

2선거구(중앙·향동·매곡·저전·장천·남제·풍덕동)에서는 서대석 전 전남도의원과 3선의 박동수 순천시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과 순천대 검교수수를 맡고 있으며 박 의

선거구 2곳 → 5곳으로 늘어 5선거구 6명 등 입지자 붐물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기태(민·55)	순천시의원
	정영식(민·58)	순천시의원
	조재근(민·52)	민주당 전남도당 조직행정실장
2	박동수(민·57)	순천시의원
	서대석(민·54)	순천대 겸임교수
3	박홍수(민·56)	전남도의원
	서동욱(민·41)	서강원 국회의원 보좌관
4	기도서(민·47)	순천시의원
	김기형(민·46)	전 매산고 학생회장
	김병권(민·42)	순천시의원
	김재우(민·32)	순천시 체육회 이사
	박문규(민·59)	순천시의원
5	이명길(민·50)	전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흥재(민·62)	전남도의원

회장을 거쳐 4대 순천시의회원을 지냈다. 박 의원의 경우 1 또는 2선거구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선거구(왕조1·왕조2동)에서는 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기도서 순천시의회원이 최근 주소지를 옮기며 활동하고 있다.

5선거구(삼산·승주·주암·서면·향전·월등면)에서는 김기형 전 매산고 학생회장, 김병권 순천시의원, 김재우 순천시체육회 이사, 박문규 순천시의원, 이명길 전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흥재 전남도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새마을중앙회 순천지회 회장을 역임,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이 의원과 이 전 사무국장의 공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히태민기자 hagija@

광주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동남로 100
 1973년 설립
 2009년 12월 28일 개교
 1973년 설립
 2009년 12월 28일 개교
 1973년 설립
 2009년 12월 28일 개교